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김 기 현**

Kim, Ki Hyun

조 복 희***

Cho, Bok He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act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ecological factors on the parenting stress of dual earner families. Subjects were 318 fathers and 405 mother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on parenting stress and ecological factors.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erceived high parenting stress compared with father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was a significant correlate of parenting stress. Demographic and ecological factors were also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variation in parenting stress of dual earner familie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formal child care systems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working parent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맞벌이 가정의 부모(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1999년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로 우석대학교의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우석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교수

I. 서론

가정은 아동이 출생하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최초의 학습장소이며,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bidin(1990), Crnic과 Greenberg(1990), Deater-Deckard와 Scarr(1996), 그리고 신숙재(1997)등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 연구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가족은 서구 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있으나 실제의 가족가치관은 아직은 전통적인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자녀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지지 체계가 축소됨에 따라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부담감이 가중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분담 및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더욱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로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Lamb, 1986). 또한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을 통한 즐거움이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갖기 때문에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개념에는 친숙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규명해 왔다(Abidin, 1990 ; Belsky, 1984 ; Mash & Johnston, 1990). 특히 Belsky(1984)는 아동의 인성이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부모가 겪는 사회 관계망에서의 스트레스라고 규정하였으며, 부모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도움을 주는 주변상황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부모가 주변 상황에서 받는 긴장과 지지는 부모역할 인식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역할 인식 및 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규명한 것이다. 또한 Abidin(1990)은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으며, 박용임(1995)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로 하여금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행해진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부부 대상 연구가 아니라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강희경, 1998 ; 고성혜, 1994 ; 조혜승, 1996; Mash & Johnston, 1990). 즉, 날로 증가하는 취업모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에게도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예를 들면 우울 성향,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전략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므로 어머니 관련 변인만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부모 어느 한 쪽만의 영향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아버지의 태도와 특성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특성에 대한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남편의 지지나 지원은 아내의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들(Brand & Hirsch, 1990 ; Ross & Mirowsky, 1988)을 통해 볼 때, 자녀양육이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며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evy-Shiff와 Israelashvili(1988)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수행과 관계되는 요인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변상황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자녀양육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므로 부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자녀양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을 토대로 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발달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환경 세분화 체계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을 탐색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 변인과 세 가지 수준의 환경체계 변인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첫째, 유기체 변인은 연구대상이 지닌 변인으

로서 맞벌이 부부 자신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 효능감, 완벽성 변인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미시체계 변인은 유기체가 몸담고 있는 인접환경을 말한다. 원가족 관련 변인인 유년기 행복도와, 생식가족 변인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자녀수, 가족형태가 있으며, 자녀 관련 변인인 기질, 성별, 연령, 출생순위가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직장 관련변인인 직업 유형과 직무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셋째, 중간체계 변인은 미시체계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 변인 중 원가족간의 상호관계인 조부모 양육 여부와 생식가족간의 상호관계인 보육에 대한 만족도 변인이 포함되었다.

넷째, 거시체계 변인은 인간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으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말한다. 부모가 지닌 부모역할관과 자녀가치관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부모가 지닌 부모역할관과 자녀가치관 변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와 모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부 각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은 전라북도의 행정구역 중에서 3개 시와 3개 군을 임의로 선정한 뒤 각 기관의 원장을 통해서 부모들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다양한 직종의 맞벌이 가정이 표집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총 30기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 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쌍(pair)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용 설문지까지 함께 응답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를 제작한 뒤 이 질문지를 담당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을 통해 일주일 간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작성케 한 뒤 회수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9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으며, 맞벌이를 하는 500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누락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버지용 318부와 어머니용 405부, 총 728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자녀양육 스트레스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우리 문화에 맞도록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

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개발을 위해 먼저, Abidin(1990a), Crnic과 Greenberg(1990), Mann과 Thornberg(1990)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44문항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법을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구성된 문항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문항양호도 검사를 위해 χ^2 검증과 Cramer's V 계수를 구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2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alpha = .89$),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12문항($\alpha = .83$),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alpha = .82$)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 완벽성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 MPS) 중 자기-지향적 완벽성 척도(15문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3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3) 부모역할관

양명숙(1993)이 제작한 부모역할관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의 역할에 전통적 대 평등적(Traditional vs Equal)인 관점으로 나누었으며 전통적 역할관 15문항, 평등주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변인	아버지 집단		어머니 집단	
	범주	빈도(%)	범주	빈도(%)
연령	35세 미만	105 (33.0)	35세 미만	279 (68.8)
	35세 이상	213 (67.0)	35세 이상	126 (31.1)
	평균 (SD)	36.3 (4.2)	평균 (SD)	33.6 (3.4)
교육 수준	고졸	105 (33)	고졸	183 (45.1)
	대졸 이상	213 (67)	대졸 이상	222 (54.8)
직업	시간제	21 (6.7)	시간제	78 (19.20)
	단순직	93 (29.2)	단순직	78 (19.2)
	사무직	102 (32.0)	사무직	102 (25.1)
	전문직	102 (32.0)	전문직	147 (36.2)
월 수입	200만원미만	150 (47.1)	200만원미만	186 (46.0)
	200-300만원	84 (26.4)	200-300만원	129 (31.8)
	300만원이상	84 (26.4)	300만원이상	90 (22.2)
	평균 (SD)	195 (127)	평균 (SD)	154 (125)
조부모 양육 참여	참여안함	249 (78.3)	참여안함	303 (74.8)
	참여함	69 (21.6)	참여함	102 (25.1)
자녀수	1명	48 (15.0)	1명	72 (17.7)
	2명	231 (72.6)	2명	258 (63.7)
	3명이상	39 (12.2)	3명이상	75 (18.5)
	평균 (SD)	2.0 (0.6)	평균	2.0 (0.6)
자녀출생순위	첫째	183 (57.8)	첫째	231 (57.0)
	둘째	105 (33.0)	둘째	129 (31.8)
	셋째이상	30 (9.4)	셋째이상	45 (11.0)
자녀 성별	남	171 (53.7)	남	228 (56.2)
	여	147 (46.2)	여	177 (43.7)
자녀 연령	4세이하	84 (26.4)	4세이상	108 (26.6)
	5세	135 (42.4)	5세	156 (38.5)
	6세이상	99 (31.1)	6세이상	141 (34.8)
	평균 (SD)	5.0 (1.0)	평균 (SD)	5.0 (1.1)
자녀의 기질	순한편	156 (49.0)	순한편	177 (43.7)
	까다로운편	162 (50.9)	까다로운편	228 (56.2)

적 역할관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등적 부모역할관 5문항($\alpha = .64$)만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역할에 대해 평등적인 가치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4) 부모효능감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Giband - Wallston (1977)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CS)를 토대로 하여 박성옥(1993)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alpha = .82$)으로 구성되었으며 7문항은 긍정적 내용이며 2문항은 부정적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문항은 재부호화한 뒤 채점하였다.

5) 자녀가치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조복희·이진숙, 1998)를 참고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내포된 속담 12가지 중에서 인식정도가 높은 7개의 속담($\alpha = .82$)에 대한 동의 정도로 자녀양육관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속담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자녀의 기질

자녀의 기질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현온강, 1993)를 참조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2문항을 선정하여 일부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기질에 관한 문항은 1문항은 긍정적 내용으로, 다른 1문항은 부정적 내용으로 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재부호화 한 뒤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움을 의미한다.

7) 유년기 행복도

맞벌이 부부의 유년시절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현온강, 1993)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문항은 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년기에 비교적 행복하게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8)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현재의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의 만족정도에 대해 각각 2문항씩을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매우 불만족한다’에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9) 배우자의 지지

현온강(1993)이 개발한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중에서 배우자의 자녀양육행동이나 지원에 관한 “배우자의 지지” 척도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4문항($\alpha = .85$)을 선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따른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0) 보육에 대한 만족도

Mann과 Thornberg(1987)의 어머니 죄책감 척도(MGS : Maternal Guilt Scale)의 하위 영역중 보육에 대한 만족도 요인 3문항중 내용이 중복되

는 문항을 제외한 2문항을 선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 수록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10월 5일부터 5일만에 걸쳐 맞벌이 부부 20쌍과 아동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아버지용 질문지까지도 어머니가 함께 응답할 우려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조사 과정에서는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의 질문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응답하게 하여 배우자가 대신 응답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 까지 실시하였다.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 500명, 어머니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성실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투입된 자료는 아버지용 318부(회수율 : 63.6%), 어머니용 405부(회수율 : 81.0%)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연구 대상자의 생태학적 체

계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와 모집단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 집단과 아버지 집단 각각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각 체계 변인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미시체계 변인에 있어서 출생 순위와 자녀의 수 변인간에 상관계수가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변인 중 출생 순위는 제외시키고 자녀의 수만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체계 변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인 독립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다음 <표 2>, <표 3>, <표 4>, <표 5> 와 같다.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을 제거한 다음 각 체계 변인들을 독립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고, 그 결과 beta값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유기체 변인 구성요소들간의 상관계수

독립변인	1	2	3	4
1. 부모 연령	1.00			
2. 부모 교육수준	-.07	1.00		
3. 완벽성	-.09	-.08	1.00	
4. 부모효능감	-.14	.15	.25	1.00

<표 3> 미시체계 변인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계수

독립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유년기 기억	1.00											
2. 수입	.19	1.00										
3. 배우자 지지	.25	.18	1.00									
4. 결혼만족도	.21	.12	.46	1.00								
5. 자녀수	-.05	-.10	-.13	-.05	1.00							
6. 가족유형	-.04	-.02	-.10	.01	.08	1.00						
7. 자녀의 기질	-.13	.05	-.18	-.18	.10	.09	1.00					
8. 자녀의 성	.00	-.01	-.02	.05	.10	-.11	-.05	1.00				
9. 자녀 연령	-.12	.01	-.09	-.10	.26	-.05	-.02	.06	1.00			
10. 출생순위	-.01	-.04	-.07	-.11	.66	-.10	.04	.11	.25	1.00		
11. 직업유형	.09	.36	.03	.00	-.24	.06	-.05	-.18	-.16	-.20	1.00	
12. 직업만족도	.22	.19	.25	.32	-.06	.05	-.20	-.14	-.05	-.09	.22	1.00

<표 4> 중간체계 변인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계수

독립변인	조부모 양육	탁아 만족
조부모 양육	1.00	
보육만족도	.02	1.00

<표 5> 거시체계 변인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계수

독립변인	부모역할관	자녀 가치관
부모역할관	1.00	
자녀가치관	-.08	1.00

맞벌이 가정의 부부 각각이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가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어머니 집단(평균=85.3)이 아버지 집단(평균

III. 연구결과

1.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의 성차

<표 6> 맞벌이 부부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의 성차

요인	아버지(N=318)		어머니(N=405)		t
	평균	SD	평균	SD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27.3	8.2	31.8	7.8	-7.54***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9.5	7.8	33.3	7.0	-6.97***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17.2	6.7	20.2	5.6	-5.46***
전체 양육 스트레스	74.5	20.3	85.3	17	7.82***

** p<.001

=74.5)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있어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3요인 모두에서 어머니 집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생태학적 변인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모형을 자료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연령, 교육수준, 완벽성 등 3개의 유기체 변인과 유년기 행복도, 수입,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가족형태, 자녀의 기질, 직업유형, 직업만족도의 8개의 미시체계 변인과 조부모 양육여부, 보육만족도의 2개의 중간체계 변인, 그리고 자녀가치관 변인인 1개의 거시체계 변인을 포함한 총 14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14개의 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β	b	β	b	β	b	β
아버지의 연령	-.75	-.21***	.09	.01	-.26	-.05	-.03	-.07*
아버지의 교육수준	.30	.06	.04	.03	-.25	-.07	.34	-.09*
완벽성	-.49	-.19***	-.09	-.07	-.31	-.12***	-.29	-.11***
부모효능감	.34	.07	.23	.06	-.14	-.04	-.11	-.03
유년기 행복도			.04	.03	.38	.10**	.10	.07*
수입			.28	.17***	.02	.14**	.24	.15***
배우자의 지지			-.56	-.22***	-.11	-.16***	-.89	-.12***
결혼 만족도			-.79	-.30***	-.07	-.04	-.08	-.06
자녀 수			.08	.06	-.09	-.03	-.18	-.05
가족형태			.03	.02	-.05	-.05	-.42	-.09**
자녀의 기질			.27	.17***	.35	.18***	.18	.14***
자녀의 성별			-.06	-.03	-.19	-.09	.12	.03
자녀의 연령			-.11	-.06	.31	.01	.08	.04
직업 유형			-.12	-.03	.14	.07	.18	.08*
직업 만족도			-.67	-.29***	-.36	-.15***	-.36	-.12***
조부모양육여부					-.06	-.05	-.35	-.07*
보육만족도					-.58	-.62***	-.61	-.57***
부모역할관							-.09	-.03
자녀가치관							.69	.20***
중다상관R	.3340		.6750		.8381		.8562	
R ²	.1116		.4556		.7024		.7331	
R ² 증가량			.3440		.2468		.0307	
F	9.83***		16.85***		44.40***		45.63***	

*p<.05, **p<.01, ***p<.001

〈표 8〉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중다상관계수 (R)	결정계수 (R ²)	R ² 의 변화	F값	회귀계수 (beta)
보육 만족도	-.74	.55		379.7***	-.74
자녀가치관	.78	.60	.06	238.9***	.19
직업만족도	-.80	.64	.04	185.0***	-.16
자녀의 기질	.81	.66	.02	153.7***	.14
수입	.83	.68	.02	133.3***	.15
배우자의 지지	-.84	.70	.02	119.5***	-.16

***p<.00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개의 변인 중에서 약 1%이상의 설명력을 지닌 변인은 모두 6개 변인이며, 이 6개의 변인이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변량은 약 70%이며, 이중에서 '보육 만족도'가 5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가로 '자녀가치관'이 6%, '직업만족도'가 4%, '자녀의 기질'이 2%, '수입'이 2%, '배우자의 지지'가 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beta=-.74) 보육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보육만족도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지닌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beta=.19). 이는 자녀양육에 대해 힘이 들고 갈등과 애로가 많으며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16), 이러

한 결과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기회가 적으며 부모역할 수행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Levy-Shiff등 (198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직업만족도와 자녀양육 참여 행동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Belsky(198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4), 월수입이 많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5),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반대로 배우자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beta=-.16). 이는 가족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민주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배우자의 지지는 부모효능감과 양육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elsky, 1984 ; Crnic등, 1983 ; Cutrona & Troutman, 1986)를 지지하는 것이다.

3.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모형을 자료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9>

와 같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 교육수준, 완벽성, 부모효능감등 3개의 유기체 변인과, 유년기 행복도,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자녀의 수, 자녀의 기질, 자녀의 성별과 같은 6개의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인 보육만족도 변인 1개와 부모역할관이라는 거시체계 변

<표 9>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의 연령	-.24	-.04	-.65	-.13	-.05	-.01	-.06	-.01
어머니의 교육수준	.22	.08	.43	.15***	.41	.15***	.35	.13***
완벽성	.52	.21***	.71	.28***	.48	.19***	.46	.18***
부모효능감	-.70	-.47***	-.87	-.32***	-.69	-.19***	-.70	-.19***
유년기 행복도			-.94	-.09*	-.42	-.04	-.45	-.04
수입			.14	.03	.06	.04	.04	.03
배우자의 지지			-.79	-.15***	-.80	-.15***	-.83	-.16***
결혼 만족도			-.24	-.26***	-.17	-.18***	-.19	-.18***
자녀 수			.25	.10*	-.04	-.03	.50	.02
가족형태			-.25	-.007	-.14	-.05	-.11	-.02
자녀의 기질			.18	.18***	.18	.18***	.18	.18***
자녀의 성별			.36	.10**	.25	.07*	.23	.07*
자녀의 연령			.26	.01	-.15	-.04	-.68	-.04
직업 유형			.27	.01	.42	.02	.29	.02
직업 만족도			-.44	-.05	-.46	-.05	-.38	-.04
조부모양육여부					-.08	-.02	-.73	-.02
보육 만족도					-.45	-.45***	-.45	-.45***
부모역할관							.50	.09*
자녀가치관							.15	.04
중다상관R	.4496		.6445		.7550		.7596	
R ²	.2021		.4154		.5701		.5769	
R ² 증가량			.2133		.1547		.0068	
F	25.33***		18.42***		32.16***		29.24***	

*p<.05, **p<.01, ***p<.001

인 1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이상의 11개의 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stepwise 방식으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개의 변인 중에서 약 1%이상의 설명력을 지닌 변인은 모두 7개의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7개의 변인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변량은 약 56%이며, 이중에서 '보육만족도'가 3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기질'이 8%, '결혼만족도'가 5%, '배우자의 지지'가 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2%, '부모효능감'이 2%, '완벽성'이 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보육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beta=-.59), 어머니의 보육만족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족에서 취업여성

들이 보육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때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들(Goldberg & Eastbrooks, 1984 ; Hoffman, 1988)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 이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Mash & Johnston, 1990 ; Webster-Stratton, 1990)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결혼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21),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Belsky(1984)의 주장과, 부부간의 부조화는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 있다는 Goldberg등(198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가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

<표 10>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중다상관계수 (R)	결정계수 (R ²)	R ² 의 변화	F값	회귀계수 (beta)
보육 만족도	-.59	.34		212.2***	-.59
자녀의 기질	.65	.43	.08	149.7***	.20
결혼 만족도	-.69	.48	.05	122.3***	-.21
배우자의 지지	-.70	.49	.01	97.0***	-.16
어머니의 교육 수준	.72	.51	.02	83.8***	.15
부모효능감	-.73	.53	.02	74.1***	-.22
완벽성	.75	.56	.03	71.2***	.19

***p<.001

가 낮아지며 배우자의 지지가 낮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마찬가지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 즉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부모효능감이 낮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효능감에 대한 부모자신의 지각을 양육 스트레스의 필수 요인으로 지적한 Mash와 Johnston(1990)의 연구와 일치된 견해이며, 부모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Singer등(199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완벽성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9$), 이는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느끼는 고통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Mitchelson등, 1998)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인간발달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벌이 가

정의 아버지 318명, 어머니 405명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 집단과 아버지 집단간의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ebster-Stratton(1990)과 Frank, Hole, Jacobson, Justkowski와 Huyck(1986)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역할 부담이 어머니에게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보육만족도 변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만족도, 자녀의 기질, 수입 변인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의 기질,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교육수준, 부모효능감, 완벽성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 설명변인은 보육만족도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변인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직업만족도 변인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서 부부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생태학적 체계에 의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간체계 변인(보육만족도)과 미시체계 변인(자녀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공통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하여 아버지의 경우에는 거시체계 변인(자녀가치관), 미시체계 변인(직업만족도, 수입)의 영향력이 추가되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미시체계 변인(결혼만족도)과 유기체 변인(교육수준, 부모효능감, 완벽성)의 영향력이 추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주로 어머니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가 지닌 특성인 유기체 변인과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담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직장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여성을 어머니나 아내로만 보려는 고정적 여성상에서 탈피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취업모를 지원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부모 휴직제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실시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통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맞벌

이 가정의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생태학적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중간체계 변인인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며 체계적인 보육제도의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고려할 때 양육 스트레스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그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적 보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가족 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필요성과 문제 의식을 느끼고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의 책임이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역할은 주변인에 그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동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은 사회와 문화의 전형화에 의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이은숙 외, 1991),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역할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러한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직장이나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활발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결혼만족도로 나타났으므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직업만족도 변인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있어 지원효과를 가져오며,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희경(1998). 3세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5호, 141-150.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권 9호, 49-62.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호, 21-37.
-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명숙(1993). 부모 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53-66.
- 이은숙, 이경우, 이기숙(1991). 한국 아버지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1집, 105-138.
- 조복희,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한국아동학회지, 제19권 1호, 5-26.
- 조혜승(1996).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은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1990a).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and, S., & Hirsch B, J.(1990). The contribution of social networks, work-shift schedules, and the family life cycle to women well-being. In S. Duck(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Newbury Park : SAGE.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ater-Deckard, K., & Scarr, S.(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Giband-Wallston, J. A.(1997). Self-esteem and situational stress : factors related to sense of competence in new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 Frank, S., Hole, C. B., Jacobson, S., Justkowski, R., & Huyck, M. (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48-355.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Hewitt, P. L., & Flett, G. L.(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ffman, L. W.(1988).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 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2), 283-292.
- Lamb, M. E.(1986). The changing roles of the fathers.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ed. M. E. Lamb, New York: John Wiley & Son.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 Mann, M. B., & Thornberg, K. 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Mitchelson, J. K., & Burns, L. R. (1998). Career mothers and perfectionism : stress at work and at ho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477-485.
- Ross, C. E., & Mirowsky, J.(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f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Singer, T. L., Davillier, M., Bruening, P., Hwkins, S., & Yamashita. S.(1996).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distress, and parenting strains in mothers of very low birthweight infants. *Family Relations*, 45, 343-350.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